

## 질병의 완전 청정화를 위해 지속적인 사업을 추진하는 안성 양돈공동방역사업단

**우**리 나라에서 돼지콜레라는 1947년 서울 근교의 한 양돈장에서 처음 발병된 이후 지금까지도 산발적으로 전국에 걸쳐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 나라의 최대 돼지고기 수입국인 일본의 경우 지난 93년 이후 최근까지 돼지콜레라가 비 발생되고 있으며, 2001년 1월 돼지콜레라 비 발생 국가임을 선언할 예정으로 있어, 일본이 계획대로 실행한다면 적어도 6개월 전인 2000년 7월부터는 돼지콜레라 백신접종을 중단하게 되며, 국제수역사무국(OIE)에서 규정한대로 일본 정부가 돼지콜레라 발생국가로부터 수입을 전면 중단하게 될 경우, 일본에 전량을 수출하는 우리 양돈산업은 막대한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게 된다.

우리 나라가 일본에 돼지고기 수출을 계속 하기 위한 방법

으로는 일본과 같이 돼지콜레라 비 발생 국으로 국제수역사무국(OIE)에 등록하는 방법 밖에 없으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나라도 2000년 7월까지 는 돼지콜레라 백신접종을 중단해야만 하며,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 돼지콜레라를 박멸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그러나 8월 3일 경기도 용인의 한 양돈장에서 사육중인 돼지에서 돼지콜레라가 발생하는 등 최근까지도 이 질병이 발생하여 양돈산업에 종사하는 많은 사람들을 긴장시키고 있다.

지난 5월 모 신문사에서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국내의 돼지고기 수출중단에 따른 영향을 100% 받을 경우 9조2천6백45억 원의 양돈관련 산업에 손실이 있을 것으로 분석하였는데, 이는 지난 97년 3월 대만에서 구제역 발생으로 일본에 대

취재 : 이병석 대리



안성 양돈공동방역사업단 사무소 전경

한 수출길이 막힘으로 인한 피해액이 무려 8조9천억원(대만 행정원의 추정자료)이며, '99년 현재 사육두수가 37%, 사육호수가 32% 감소한 사례에서도 그 피해 정도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짐작할 수 있을 것이라 하겠다.

이에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 차원의 돼지콜레라 박멸 비상대책본부가 결성되어 현재 전국적인 발생실태 조사와 홍보 등 돼지콜레라 박멸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본회 안성 양돈공동방역사업단은 지난 97년 11월 설립되어 그 후 98년 7월부터 전문 수의사를 확보하고 질병 방역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였다.

안성 지역은 지난 97년 6월과 9월에 2차례 돼지콜레라가 발병된 이후 지금까지 발병되

지 않고 있는 지역이다.

### 안전하고 위생적인 돼지고기 생산 위해 설립된 양돈공동방역사업단

안성 양돈공동방역사업단(단장 : 이광우, 이하 안성공방단)은 안성 지역의 주요 돼지 전염성 질병을 예방 또는 박멸하여, 가축질병에 의한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막아 양돈농가의 소득 증대에 기하고, "안전하고 위생적인 돼지고기를 생산"함으로써 양돈산업을 지속적인 수출 산업으로 이끌며, 국내 소비 시장에서도 외국산 돼지고기와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안정된 산업 기반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본회 안성지부가 주체가 되어 설립하였다.

안성공방단은 설립을 계기로 안성지역 내 전체 양돈농가의 공방단 사업에 참여를 유도하고, 정기적인 농가 사육현황 조사와 채혈 검사를 실시하여 돼

지콜레라 백신 100% 접종, 돼지오제스키병 유입 차단, 돼지 설사병 근절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안성공방단은 안성시 축산과장, 안성시 농업기술센터 소장, 안성축산업협동조합장, 가축위생시험소 남부팀장, (주)다비육종 사장, 안성시 의사 회장 등이 참여하는 방역협의회를 구성하여 98년에 3차례, 99년에 1차례의 협의회를 개최하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단계별로 사업을 실행에 옮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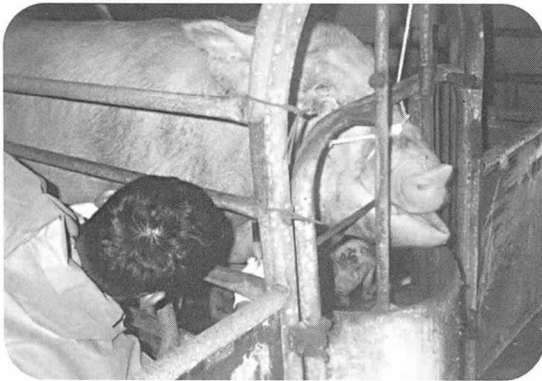
우선 안성공방단은 지난 98년 7월부터 시작하여 올해까지 4차례에 걸쳐서 양돈농가에 대한 방역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공방단 활동 안내 및 주요 질병 근절을 위한 방역 대책 홍보물을 5회 배포하고, 농가들이 방역사업에 동참해 줄 것을 적극 홍보하였다.

### 안성지역 내 전체 양돈 농가 대상 채혈검사 시작

백신 접종은 농장 자가 접종을 원칙으로 하고, 돼지콜레라 백신의 경우 누락된 농가를 특별관리 하였으며, 백신의 배분은 농가가 사무소를 방문하여 직접 인수하거나, 회의 또는 교육 모임 시 참석자들에게 배분하였는데, 백신 이송 시 스티로폼 박스와 얼음을 필히 동봉하여 배분하였다. 또한 공방단 내 별도의 동물병원을 두고 전문



◀시 당국에서도 방역장비, 채혈 소모품 등의 장비비를 지원하고 있다.



◀안성공방단 양돈수의사가 군내 한 양돈농가를 방문하여 하반기 채혈을 하고 있다.

수의사 2명의 백신접종 지원팀을 운영하여 지원팀 수의사들로 하여금 백신접종 기술을 지도하고, 자가 기술이 곤란한 경우에만 콜레라 백신에 한하여 수의사가 직접 기술을 해주고 있다.

안성지역의 양돈농가는 전체 230여 농가에 이르고 있으며, 돼지사육두수는 26만여 두에 이르고, 호당 평균 돼지 1,200여 두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안성공방단은 지난 98년 하반기에 1차로 지역 내 229호의 농가 중 166농가를 대상으로 모돈 1,263두에 대하여 채혈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검사 완료된

142농가의 경우 25(18%)에서 접종 불량으로 확인되어 특별관리 대상으로 정하고, 백신접종 기술교육을 실시하여 농가에서 정확한 백신접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였다.

2차 채혈검사는 1차 채혈검사 이후 안성지역 내 예방접종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지난 99년 1월 13일부터 4월 9일까지 진행되었으며, 전체 양돈농가 232농가 중 197농가를 대상으로 채혈을 실시한 결과 이중 157농가가 백신접종 상태가 양호(80% 이상)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18%인 40농가는 접종상태가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후 공방단은 4월 이후 접종상태가 불량인 농가에 대해서 특별관리에 들어가 특별 방역교육 실시, 백신접종 실시, 채혈 검사, 검사결과 확인 등 차례대로 조치한 후, 채혈 검사한 결과 이 농장들도 백신접종 상태가 80% 이상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한편 2차로 채혈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나머지 35농가에 대해서도 농가 사육현황을 조사하고, 사육 중지하거나, 폐업한 농가, 채혈 대상돈이 없는 농가를 제외한 나머지 5농가에 대해서도 채혈검사를 실시한 결과 백신접종 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판명되어 안성지역 전체 양돈농가 100%가 백신접종 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는 결과를 얻었다.

안성공방단은 돼지콜레라뿐만 아니라 돼지오제스키병 양성돈으로 발견된 농가가 4농가로 나타남에 따라 이 농가들에 대해서도 특별관리에 들어가 양성돈으로 판명된 모든 돼지를 전두수 도태완료 하는 등 돼지오제스키에 대해서도 100% 음성을 나타내 청정화를 유지하였다.

### '99년 하반기 3차 채혈 검사 8월 5일부터 시작

현재 정부에서는 돼지콜레라 백신접종 시기를 자돈은 1차 40일령(5~6주령), 2차 60일령(8~

안성 양돈공동방역사업단 이광우 단장. 이 단장은 돼지콜레라를 기필코 박멸하고야 말겠다고 밝히고, 돼지콜레라 뿐만 아니라 돼지오제스키, 돼지큐제역 등 한번 전염되면 치명적인 손실을 끼칠 수 있는 질병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공방단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9주령)에 접종하고, 번식돈, 종돈에 대해서는 매년 1회 접종하되, 모돈은 분만후 3주경에 접종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

안성공방단은 이러한 권장사항을 따르면서 모돈에 대해서만 매년 이유시 백신접종을 하게끔 하여 모돈에 대해서는 연 2회 접종으로 혹시 있을지 모를 접종 누락 사고가 미연에 방지될 수 있도록 하였다.

공방단은 하반기에도 채혈검사를 8월 5일부터 시작하여 이번에는 10월 중순까지 끝낼 예정으로 예상 항체가 양성률이 95% 이상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광우 안성공방단장은 항체가 얼마나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백신접종을 얼마나 정확히 100% 완벽하게 시술하느냐가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이와 함께 채혈도 양

돈장에서 직접 채혈하여 검사하는 방법만이 돼지콜레라를 근절하는데 가장 효과적이라고 강조한다.

### 공방단 운영비는 지부 회비와 방역회비 통해 모금

공방단은 현재 본회 지부 이사가 공방단 운영위원을 맡고 있으며, 지부 총무가 공방단 총무일을 겸하는 등 공방단 사업이 지부사업과 함께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현재 공방단에 근무하는 양돈전문 수의사 2명이 농장을 직접 돌아다니며 채혈과 검사, 백신접종 시술 지도 등 농장 서비스를 해주고 있다. 처음 채혈검사를 시작했을 당시 양돈농가들의 반응이 무척 낮았었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는데 무척 애로가 컸었지만, 1년이 지

난 99년 8월 현재 3차 채혈검사가 이루어지는 지금은 안성지역 내 모든 양돈농가가 적극적으로 채혈 검사에 협조하는 등 농가들의 의식이 확실히 바뀐 것을 피부로 느끼며 업무를 수행한다고 한다.

안성지역이 돼지콜레라를 전두수에 백신접종하기 위해서는 100만두 분의 백신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안성지역은 지난 98년 말부터 올해 8월 현재까지 총 62만 3천 두 분의 백신공급이 이루어졌으며, 올해 안에 거의 100%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안성공방단이 지난 98년 7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한 이래 가장 어려웠던 점은 다른 여느 지역과 마찬가지로 공방단 운영비를 어떻게 마련하느냐가 가장 큰 어려움이었다고 한다.

특히 공방단 사업은 지부 회원뿐만 아니라 안성 지역 내 모든 양돈농가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부 회원들이 내는 회비만으로는 어려워, 지부 임원들과 관련업체의 지원을 받고, 안성 지역 내 돼지콜레라 백신을 지원 받는 모든 농가에 대하여 수령받는 분량에 따라 방역회비를 부담하게끔 하여 사업비를 마련하였다. 특히 방역회비는 농가들이 백신을 수령해 갈 때 일정액을 부담하는 것으로 백신 수량(농가 규모)에 따라 형평성 있게 부과하므로 농가들도 전혀 부담을 느끼지 않고 방역회비를 부담한다고 한다.

양돈농가들은 이 사업에 적극 동참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지난 98년 1차로 채혈할 당시 안성 지역 내 3개 농가에서 돼지오제스키병 보균돈이 발생되었을 당시 보균돈에 대해서 전체를 도축하고, 피해 농가들에 대해서는 지부에서 모금을 통해 보상해 주었는데, 그 이후로

농가들이 공방단 사업에 적극 협조하게 되었으며, 지금은 농장에서 조금의 이상한 징후가 발견되거나 의심나면 바로 공방단에 검사를 의뢰한다고 한다.

이렇게 해서 지난 98년도에는 5,200만원 규모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으며, 올해에는 12,600만원의 예산을 세우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물론 올해에도 계획한 사업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지방 정부와 협조가 긴밀하게 유지되어 시 당국에서도 방역장비, 채혈 소모품 등의 장비도 지원을 받고 있다고 한다.

### 공방단 사업은 그 지역 특성에 맞추어 추진되어야

이광우 안성공방단장은 “공방단 사업은 그 지역 특성에 맞게끔 추진되어야 하며, 정부에서도 백신접종 시술비의 효과적인 지원 등 공방단이 활동

하는데 더욱 더 관심을 가져주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특히 “공방단 사업은 필수이며, 이 사업을 맡은 사람들이 돼지콜레라를 박멸하는데 어떠한 방법을 써서라도 기필코 박멸하고야 말겠다는 소신을 가지고 규정에 얽매이지 않고 실행에 옮겨야 만이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한다.

이 단장은 이와 함께 앞으로는 돼지콜레라 뿐만 아니라 돼지오제스키, 돼지구제역 등 한번 전염되면 치명적인 손실을 끼칠 수 있는 질병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공방단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한다. 이 단장은 마지막으로 공방단 사업을 추진하는데 많은 분들이 협조해 준 것에 대해 감사를 드리며, 특히 채혈 검사를 요청한 대로 잘해 준 경기도 축산위생연구소 남부팀에 대해서도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한다. **양돈**



# 돼지콜레라 박멸없이 양돈산업 미래없다